제자들을 뽑으시고 파견하시는 예수님

가해 연중 제 11주일

1. 말씀읽기: 마태 9,36-10,8

36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38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1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4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5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7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8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파견받은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뽑으시어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뽑힌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질문 1: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①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었지만 일을 해야 하기에 지킬 수 없었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② 백성의 지도자들은 목자가 되어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했지만, 지도자들은 가난한 백성을 죄인 취급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군중은 자신들의 처지를 굽어살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느님 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군중들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당신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질문 2: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행복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

.....

다음 주 과제는 ”행복한 우리집“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내용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 동생과 형, 누나, 언니에 대한 관계와 사랑, 가족 기도, 내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 주일 풍경, 식사 시간, 우리 집 등을 글로 표현해 봅니다. 가족이 함께 써보세요.

아래의 글은 인터넷에 있는 글을 옮겨 놓았습니다.

웃음꽃 피는 우리집

아빠가 퇴근길에 문을 열면 집 안 가득 환한 불이 켜져요./ 엄마의 보글보글 된장찌개 냄새 내 마음도 몽글몽글 따뜻해져요./ 아빠의 든든한 등 뒤에 업히고 엄마의 부드러운 손을 잡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 되지요.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우리집 거실에는 매일매일 알록달록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집은 초콜릿

우리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요./ 속상해서 눈물 눈물 흐른 날도 현관문만 스르륵 열고 나면 / 마법처럼 슬픔이 녹아내려요. / 아빠의 "우리 딸 최고" 한마디 엄마의 따뜻한 품속 안아주기/ 달고 맛있는 초콜릿처럼 우리집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행복이 가득한 단짝 친구입니다.

성당에서 즐겁게 기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저녁기도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누군가 기도상에 촛불을 밝히면/ 모든 것을 멈추고 모입니다. / 기도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저 촛불을 밝히고 작은 종을 울리면 엄마는 정리를 멈추고 아빠는 일을 멈추십니다. /동생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모두가 기도상 앞에 앉습니다./ tv 소리, 음악소리, 설거지 소리, 청소기 소리도 사

라집니다.

누군가 촛불을 밝히고 작은 종을 울리면/ 우리 가족의 저녁기도가 시작됩니다./
동생은 아빠 품에 안겨 기도하고/ 저는 엄마 옆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
예수님께서 우리집에 머무르시기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저녁 기도를 바칩니다.
처음엔 왜 감사한지 몰랐어요./ 첫영성체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에 참례하면서 알게 되었죠./ 당연한 것은 없었고,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작은 종을 울리면 저녁기도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희 가족을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친 후/ 한 명씩 감사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모두가 응답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질문 3: 예수님께서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고 청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무엇이고,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① 추수는 모든 일들의 마무리를 뜻하는 것으로써,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맺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확할 밭은 세상이고 밭의 주인님은 하느님이십니다. 밭을 돌볼 일꾼들(목자)을 선택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②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직접 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③ 수확할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믿고 따르는 이들을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실치 않은 일꾼을 물리치시고(지금의 백성의 지도자들) 성실한 사람으로 당신 밭의 일꾼을 채우시려 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 구원의 손길을 온 세상에 펼치시고자 하십니다. '예' 하고 응답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하실 것입니다.

질문 4: 하느님 나라의 일꾼인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② 미사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전하고 있고, 처음 나온 친구들과 함께 기쁘게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③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 주고, 성당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④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생에게 친절하게 성경을 알려주고, 용돈을 모아 정성스럽게 봉헌금을 준비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보며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꾼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아갑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기쁘게 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질문 5: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권한은 무엇이고 임무는 무엇입니까?

①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과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이 있어야 고통 받는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은 더러운 영들을 부려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야 더러운 영들을 통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제자들의 임무는 더러운 영들(마귀)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느님을 찬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입니다.

④ 제자들의 임무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 주는 것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추수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한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말못하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들이 말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들의 말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병든 이들을 찾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전해주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주님

사랑으로 쉽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6: 열두 사도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3]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4]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이 열두 사도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

.....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로 열둘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명문 대학의 학위가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부들이었고, 열혈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하느님께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을 내가 받아들여 나 또한 커다란 기쁨을 가지고 믿고 있고, 내 신앙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질문 7: 제자와 사도는 그 의미와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① 제자(Disciple)는 '배우는 사람, 따르는 사람'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 그 삶의 방식을 본받으며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두 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남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라고 불립니다.

② 사도 (Apostle, Apostolos)는 '보냄을 받은 자, 대리인, 파견된 전령'의 의미로 스승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 스승을 대신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공식적인 대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열두 명'이 핵심이고, 나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바오로 사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다스릴 권한과 파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8: 예수님께서는 열두 사도를 파견하시며 다른 민족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①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유다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세상 모든이들에게로"라는 원칙을 지키십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

입니다. 구원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유다인으로부터 시작되어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②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내가 내 믿음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것을 배려하셨습니다.

③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선교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태28,19).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친구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부님! 제가 전교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받았어요. 너나 잘하래요. 한 대 때려주려고 하다가 참고 왔어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전교하면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교하러 갔지 상처 받으러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문 9: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① 그 선포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때, 비신자들은 나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②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웃으면서, 친절하게, 기쁘게, 진실한 마음으로, 내것을 나누면서, 한번 참고, 정화된 말을 전하고, 손잡아 주며, 인사하기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③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④ 성당에 나오라고 하면서 안나오겠다고 하면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협박하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실천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3. 정리해 봅시다.

① 오늘 말씀 중에서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②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4. 실천사항

내가 신앙인이라 것 보여주고, 가정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삶,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부모님께로부터 칭찬 받으며 살아가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해보기

5.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느님 아버지!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등으로 말씀에 감동받은 부분을 가지고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말씀 중에서 와닿는 말씀(감동, 기쁨, 사랑, 행복, 통회, 감사, 열정 등)을 한 구절 선택합니다. 그 말씀으로 전체를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있습니다/되었습니다./~습니다.

(와 닿는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기쁨과 행복, 사랑, 감사, 열정, 잘못한 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과 통회,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본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제 결심을 하기 위해 하느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제가

하소서/ 주소서/~ 도록 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사항을 2-3개 정하게 됩니다. 하느님께 그 결심(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착한 행동과 사랑스러운 모습, 변화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형제자매들에게는 작은 모범이 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는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